



# 중국 칭다오 거점 전화금융사기 총책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 송환

- 경찰청 관계자, 중국 공안부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 학원가 마약 사건 등  
양국 주요 현안 추가 논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중국 공안부와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총책 A 씨(41세, 남)을 2023년 5월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

이는 코로나 종식 이후 중국 공안 당국과 협의로 호송관을 파견, 국외도피사범을 송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한 총책으로 조직원들과 함께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30여 명에 이른다.

※ 피의자 강제송환 후 국내 추가 수사 시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할 수 있음

경찰청은 2020년 수배 관서인 대전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2021년 대전청에서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확보한 소재 단서를 중국 공안부에 여러 차례 제공하며 A씨의 검거를 요청하였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A씨가 중국 칭다오 내 은신처에서 검거됨에 따라 경찰청은 주중 대한민국대사관·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중국 공안부 및 산둥성 공안 당국과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협의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긴밀한 공조로 강제송환이 최종 성사되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중국公安부를 직접 방문, 그간公安부의 노력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추적 및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등 양국 간 주요 수사 공조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으며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경찰청은 중국公安부에 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수사자료 상호제공 및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척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가칭)’ 문안을 전달하고 양국 치안 총수 회담 시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은 코로나에 따른 국경봉쇄 국면에서도 양국 경찰 간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어져 온 데 따른 첫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제공 가능한 자료: 검거 사진, 송환 사진 및 동영상(모자이크 처리 바랍니다)

(KE846 항공편으로 12:15 도착). 끝.

경찰청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국제공조과	책임자	총경 강기택 (02-3150-2078)
		담당자	경정 송기청 (02-3150-2478)

